

소감문

전남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12학번 000

처음 귀어 귀촌 성공 사례 발표회 워크숍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 생소한 행사라는 점에서 큰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떤 것들로 성공하게 되었나 하는 궁금증으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귀어 귀촌 사례를 듣고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기술로서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됨으로서 조금은 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것은 무수히 많은 실패에도 그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목표와 그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귀에 닳도록 들었지만 이번 자리에서 더 없이 현실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들과 같은 목표나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도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 없이 나아가지는 않는다. 물론 나도 그래왔다.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한번 내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들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과 그 기술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들으며 그 누구라고 성공을 위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소 감 문

학 교 명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성 명 :

학년(전공분야) : 3. 자영수산과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면 무엇을 할 거, 어떻게 살아야 할 거 고민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수산과에 온 이상 해양에 관련된 직업을 찾아 배우고 그 직업으로 살아가고픈 생각만 있었으나 막상 생각하면 해양에 관련된 직업이라 함은 어부라던가 양식업 등 그 외에는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거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배가 되는 듯 하였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리라던가 경험담 등을 찾다가 세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갯저렁이라던가 패류양식, 전복 등 전혀 모르는 것들도 아니고 삼년동안 배워왔던 내용을 좀 하나인데 왜 이것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하여 성공하셨을까 하며 계속 접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해양양식사업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분 다 제게는 훌륭한 멘토들 이십니다만 배울점은 각각 달라 한분, 한분 존경하는 ~~이유~~ 이유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들 수산업에 관련하여 사업 연구를 하시고 성공하심에 자영수산과를 나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던 저에게 큰 통쾌와 위안이 되었고 새로운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해주셨는데 의도하신 바는 아니시겠지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분을 본보기로 배울점들은 배우며 제가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들은 보완해나가 저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성공한 사람이 되리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에 박진희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인 상훈이와 영암에 있는 현대호텔에 다른 학교학생들과 여러 수산업경영인분들과 강의를 들으러 갔다.

가는길에 눈이 많이 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예정시간보다 좀 늦게 강의가 시작되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였는데 내용은 거의 다 양식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양식엔 패조류에 속하는 왕우럭조개, 새조개, 참꼬막 등이 있었고 최근에 하기 시작한 양식은 환영동물인 갯지렁이가 있었다. 평소 바다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어릴 때 부터 바다에 관심이 많았지만 월키우는 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그런 쪽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한거 같다. 양식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준거같고 나도커서 양식쪽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의 하시는 분은 세명이였다. 첫 번째 분은 패조류 가장 종류가 많은 양식이였는데 왕우럭조개, 새조개, 참꼬막 이 있었는데 그중에 참꼬막은 자주 들어보던 말이고 또 할머니집 시골마을에서 참꼬막양식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어 알기 쉬웠다. 두 번째 분은 갯지렁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갯지렁이도 양식을 한다는 것에 놀랐다. 갯지렁이를 양식한다니 우리는 생각도 못한양식인데 그런 걸 양식한다니 놀라웠다. 마지막인 세 번째 분은전복양식에 대한 걸 알려주셨는데 전복이 가장 돈이 되는 것 같았다. 나도 양식을 할 거면 전복을 해야겠다. 연매출목표가 몇 억이나 되는 걸 보면 엄청 벌리긴 하나보다. 하지만 나중엔 이야기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가는게 아쉬웠다. 그리고 시간이 12시 30분에 강의가 끝나 맛있게 밥을 먹고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갯지렁이 양식장을 보러갔다. 양식장이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트럭을 타고 양식장으로 간 뒤 건물을 둘러 보았는데 흙이 통에 담아서 있고 거기 안에 있는 갯지렁이가 있다고 거기 학교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옆에는 스쿠버 연습을 하는 수영장이 있었다. 깊이가 8M 인 아주 깊은 곳이다. 우리학교에도 그런게 있었으면 했다. 둘러 보고 다시 트럭을 타고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로 간 뒤 박진희 선생님 차를 타고 집을 갔다. 가는 길에 선생님께서 밥도 사주시고 날씨가 추웠는데 따뜻한 음료도 사주셔서 좋았다.

소 감 문

학 교 명 : 완도속안고등학교

성 명 :

학년(전공분야) : 수산식품학과

12월 19일 학년을 대상으로 '영양력제헌대'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되었다. 강연주제는 귀여운 심공새가 발판이름이었다. 나는 종이 사탕가래그런데 귀리를 들었을 때 가래부터 실례에 들피었다. 반에서 '어디한 내용일까?'라는 기재감이 잠을 못이루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수산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었다. 수산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친하게 지냈고 같이 많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후, 강의를 시작하였을 때 첫번째로 수산경영분야 두번째로 귀여운야리 전복양식의 순서로 듣게 되었다.

수산경영분야라고 해서 '아 경영하시는거 아시겠습니' 라는 익숙한 어휘를 알았는데 뜻밖으로 패류양식에 대해 알려주었다. 우리해양이 즉진해야 하는 사항들과 패류의 종류생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학교에서 배운 알고있었지만 가장 신기했던건 알갭게도, 게불포한 인공농양생산을 한리노경이 생겼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청소년 청년들 줄은가런에게 군인을해주는 강의를 해주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다는 무었이며, 발전해나야하는 것은 무었이며, 부족한 점을 알려주었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내 자신이 갖춰야하는 자세 또한 실현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포인트와 강론을 해주었다!

두번째 강의 시간은 우리군항 원소에서 경영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김복식경영과 분게서는 해운하는 외생환경을 해답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러나.

연으로 듣게되었다. 한다. 그래서 그때 라싱해. 제 2차 인생이 시작되려 한다.

한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한다. 지역적인 생활이 달라서 어려웠지만

소 감 문

학 교 명 : 단국대학교

성 명 :

학년(전공분야) : 수산식품학과

마을주민들은 도외에서 수동하니까서 여러문제를 해결해 나가길래 이념을내왔다.

그래서 그걸 ~~해~~ 기반으로 전국양식을 하였고 내내 사업계획은 알려주는 것으로 끝으로
강의를 바꿨다 이번 시간을 통해 나머지 권리를 한번더 생각해내고,
국제적인비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어떻게 해야하나라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시간반동안의 강연이었지만 지금껏 내가 들었던 강연
들 중 관심이 많이갔던 집중포화 같 되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라
법을수있다 또한 마음가짐을 하는 변화로써 생겼다 판려된 일제를 찾아
보고, 수업을 만들어 명언을 짚는 변화가 생기며, 앞으로 나는 큰마음으로
강연에 최선을 다 할만큼 내리막길을 걷는 삶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을
공정하게 보낼것, 내안심들게 이나라 관심이라 생각하며 생활해 나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반갑다고 똑같은 시선과 기분과 이런 강연이
많았으면 좋겠다!